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中 규제폭풍의 의미, 정책적 한계
  - ◇ (국내전문가반응)-외국인 주도 반도체주 연일 투매.."과도" 견해 지배적이지만
  - ◇ (초점)-9 월 외평채 발행 앞두고 기대 커지는 크로스..베이스 축소 랠리 올해도?
  - ◇ (시장진단)-'셀 반도체'에 다음주 삼전 배당까지..외환 수급 긴장감↑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에 들어가고 몰려들었다. (로이터/임시취재단)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6일까지)

(8월16일 증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69.0	-2.3%	-7.1%	+6.5%	유로	1.1777	0.1%	-3.6%	+8.9%
100엔 대비	1,066.5	-2.7%	-1.4%	+1.1%	엔	109.23	0.9%	-5.5%	+5.2%
유로 대비	1,372.4	-1.9%	-3.4%	-2.3%	위안	6.4767	-0.2%	0.8%	+6.7%
위안 대비	179.96	-1.9%	-7.6%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5,625.40	1.2%	16.4%	+7.2%
코스피	3,171.29	-3.0%	10.4%	+30.8%	나스닥	14,793.76	-0.3%	14.8%	+43.6%
코스닥	1,040.78	-1.8%	7.5%	+44.6%	S&P500	4,479.71	1.0%	19.3%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56.31	-0.9%	-0.9%	+19.8%
국고채 3Y	1.407%	-2.6bp	43.1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66%	-0.8bp	33.1bp	-14.5bp	미국채 2Y	0.213%	0.1bp	9.2bp	-144.0bp
국고채 10Y	1.924%	2.4bp	21.1bp	+3.0bp	미국채 10Y	1.268%	-3.7bp	35.6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7.29	-1.4%	38.7%	-20.5%	한국 5Y	18.0bp	-0.4bp	-3.9bp	+0.1bp
금(현물)	1,787.24	1.4%	-5.8%	+25.0%	일본 5Y	17.4bp	0.0bp	2.3bp	-4.5bp
TR상품지수	3,152.21	3.2%	17.6%	+7.8%	중국 5Y	37.3bp	-1.5bp	9.2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8월 16일(월)>

- 대체공휴일

### <17일(화)>

- 기재부, 2차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0:00)
- 통계청, 2분기 지역경제동향(12:00)

### <18일(수)>

- 금융위,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00)
- 한은,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BOK 이슈노트 2021-20)(12:00)

### <19일(목)>

- 한은,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 한은,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 기재부, 1차관·2차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4:00)

### <20일(금)>

- 한은, 7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8월 최근 경제동향(10:00)
- 기재부,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17: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8월 16일(월)>

- 일본 2분기 GDP (08:50)
- 중국 7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7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일본 6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8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17일(화)>

- RBA, 8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10:30)
- 유로존 2분기 GDP 잠정치 (18:00)
- 미국 7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7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6월 기업재고·소매재고 수정치 (23:00)
-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18일(수)>

- 일본 6월 기계류주문 (08:50)
- 일본 7월 수출입 (08:50)
-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7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1:30)

### <19일(목)>

- 연준 FOMC, 7월 27-28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3:00)
- 일본 8월 로이터단칸 제조업지수 (08:00)
- 유로존 6월 경상수지 (17: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1:30)
-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17:00)

### <20일(금)>

- 일본 7월 CPI (08:30)
- 중국 8월 대출우대금리 (10:3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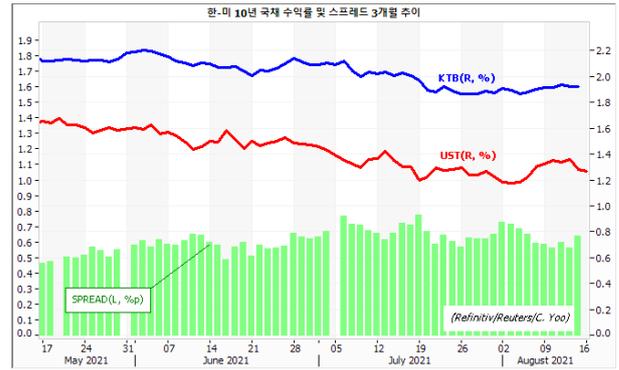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 6년 만의 최대폭 주간 상승을 기록한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변동성에 취약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50-1175 원이다.
-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구매와 이에 따른 역송금 수요에 달러/원은 단숨에 1170 원을 넘보며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다.
- 수급에 환율이 급등한 터라 이후 환율 전망도 외인 주식 매매 동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주가와 외국인 주식 투자자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전자는 18일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데, 외국인 몫은 약 1.4 조원으로 추산된다. 배당금의 재투자보다는 역송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급발 환율 변동성 확대 리스크는 여전하다.
- 경기 정점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16일 발표된 중국의 7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모두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여파가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화 약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 물론 1170 원대 진입을 막아선 외환당국 스탠스와 환율 고정 인식에 따른 대기 매물 유입 등에 달러/원 상단 저항이 두터워질 수도 있다.
- 17일에는 미국 7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이 발표되고 18일에는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록이 공개된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 테이퍼링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애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에서 챙겨볼 지표로는 17일 나올 6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와 7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등이 있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한 주 앞두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줄고 있다. 금통위 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다.
- 미국 장기 국채금리 반등에 힘입어 진행됐던 커브 스티프닝도 3년/10년 스프레드 50bp 근방에선 다소 주춤해진 모습이다. 중국 경제지표 부진 속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다시 반락한 만큼 커브의 방향도 뚜렷하지 않다.
- 시장 참가자들이 쳐다볼 만한 건 코로나 19 확진자 수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한국은행 집행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거의 유일한 재료가 코로나 19 확진자 커브기 때문이다.
- 금통위를 한 주 앞두고 확진자 수가 다시 2천명대로 치솟는다면 롱 포지셔너가 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 물론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가벼운 포지션을 감안하면 이같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뭉툭한 롱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가격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국채금리 흐름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요인이다.
- 중국의 7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1.2%대 중반 수준까지 밀렸다. 17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지표에 대한 관심도 클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글로벌 경제의 모멘텀 피크아웃(Peak out) 우려가 이미 크게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경제의 큰 그림이 바뀌는 전조로 보는 건 지나쳐 보인다.

**(분석)-中 규제 폭풍의 의미와 정책적 한계**

상하이, 8월 12일 (로이터) - 과잉 억제의 명목 하에 실시된 중국의 규제 폭풍은 시진핑 국가 주석 임기 중의 정책 리스크뿐만 아니라 정책 이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인터넷 플랫폼, 비트코인부터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과 사교육 산업에 대한 시 주석의 규제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추구했던 전면적인 성장보다 광범위한 번영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역사적 전환을 의미한다.

맹렬한 속도로 이뤄지는 새로운 규제와 중국 내 예측 불가능한 힘으로 인해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투자자들은 더 많은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로위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리거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의 캠페인은 "이전 지도자들의 캠페인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시 주석은 훨씬 강하다. 그가 캠페인을 시작할 때 관리들은 열성적으로 이를 시행하며, 그 여파는 전 세계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집권했던 2014년 인민일보는 그의 능력 부족을 겨냥해 "정책은 (베이징 중심에 위치한 중국 지도부 공간인) 중난하이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여겨지는 시 주석은 정책 이행과 확대를 향한 중국 관리들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이는 또한 하급 관리들이 상급 관리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면서 캠페인 시행이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이뤄질 리스크도 있다.

◆ 정책적 한계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에 대한 데이터 보안 단속은 디디추싱이 뉴욕증시에 상장된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져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영리 목적 교육 업종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이고 예상보다 훨씬 엄격했으며, 관영매체가 확인하기 하루 전에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문서에서 처음 드러나 주가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지난달 중국 황산시 교육당국은 한 교사의 불법 교습 현장을 잡기 위해 고급 빌라에 급습한 바 있고, 후베이성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빅터 시 부교수는 이같은 하향식 접근 방법은 국영 기업과 관련 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의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부교수는 "이같은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긴 하나, 훨씬 빠르게 이뤄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지면 이해당사자들이 크게 놀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정책은 이들의 중기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대학교 로스쿨의 윈스턴 마 부교수는 투자자들이 현실에 안주했다며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의 입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규제가 곧 나오지 않을 것이며, 나오더라도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는 10일 중국이 상업적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실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배열하고 의사소통하지 못하면 중국 주식의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당국의 자가 교정

중국 당국 역시 엄격한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영리 목적 사교육 금지로 주식시장 매도세가 촉발되자 시장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요 투자은행의 임원들과 만났고, 최근 중앙정치국은 지방 정부의 '캠페인식' 탄소 감축 노력을 바로 잡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항저우 소재 워터위즈덤애셋매니지먼트의 우안 우웨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중국이 이처럼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매우 놀라웠다며 이는 원치 않은 결과를 위해 조정하는 속도가 매우 느렸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경우 스스로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교정 과정이 느리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전문가반응)-외국인 주도 반도체주 연일 투매.."과도" 견해 지배적이지만

서울, 8월 13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올해 '슈퍼 사이클' 기대까지 불러일으켰던 반도체 업황이 한순간 '추운 겨울' 우려에 휘말리면서 국내 반도체 대표주가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번 주 들어 13일 오전 현재까지 약 8%, 15% 하락해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현재 기준으로 각각 2020년 3월, 2011년 8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이다.

외국인이 이번 주 12일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무려 3.2조원, 1.8조원어치 팔아치웠다. 이는 코스피 전체 순매도 4.3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13일 오전에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는 1조원 넘게 집계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4분기 PC용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최대 5%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불을 지폈고, CLSA 및 모간스탠리 등 주요 글로벌 금융사가 줄줄이 목표주가 하향 조정에 나서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하락이 '패닉 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업황 전망과 현재 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근 낙폭이 과도하다고 진단했으나, 반등 시점은 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 김동원 KB증권 연구원

"최근 주가 급락은 3분기 이후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과 2018년 4분기 '다운 사이클' 학습효

과에 따른 트라우마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물가격 하락, 재고 증가, 메모리 가격 하락 전환 등의 우려는 과거 사이클과 비교할 때 다른 측면이 많아 다소 과도한 우려로 판단된다. PC를 제외한 서버, 모바일 재고가 건전한 상태에서 수요는 비교적 견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DDR5 중심의 DRAM 인터페이스 변화가 시작되면서 재고 축적 발생이 예상되며, 내년 삼성전자의 신규증설 공간 부족으로 출하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급격한 공급과잉 우려도 높지 않다."

#### ▲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

"현재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다운 사이클' 전환을 상당히 반영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 현재 주가는 내년 P/B 1.1 배로, 역사적으로 BPS 1.0 배 미만 영역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 기회임도 분명하다. 다만, 향후 경쟁적 설비투자 강화, 서버의 전략적 수요 감축 (의도적인 '오더 컷'), 그에 따른 현물 및 고정가격 하락과 시장 이익 기대치 하향 조정은 당분간 주가 반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 업체들의 구조적 주가 반등 촉매는 공급사의 태도 변화 혹은 그에 대한 암시로 판단한다."

#### ▲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

"시장은 사이클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와 공급 증가에 대한 부담이 겹치면서 연말부터 가격이 하락 반전할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단기적인 하락 전환 가능성에도 중장기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할 수 있어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 ▲ 이재운 유안타증권 연구원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방산업 세트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일시적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이러한 이슈로 메모리 고객사들의 구매 움직임이 다소 소극적으로 전환되면서 4분기 반도체 가격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1주 미만으로 거의 없는 데다가 생산 'Bottleneck'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급락 또는 '다운 사이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

"PC-OEM의 DRAM 재고 축소 우려 확대가 DRAM 현물 가격 하락과 업종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DRAM 총 수요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서버와 모바일 수요가 빠르게 회복 중이고, Sapphire Rapids 출시와 DDR5 양산이 집중되는 내년 2분기 중반부터 DRAM 수급 개선이 재개될 전망이다. 현물 가격 급락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내년도 DRAM 전망에 기반한 저가 매수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최근 시장 주력 DRAM 제품의 현물가격이 고정거래가격을 하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향후 고정거래가격의 하락과 반도체 업황 및 업체 실적의 둔화를 암시하는 시그널로 작용해 왔다. 유통업자들의 DRAM 재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현물시장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듈업체들의 평균 재고는 연초 6주 수준에서 빠르게 상승해 현재는 12주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모듈업체는 이미 현물시장 내 DRAM 구매량보다 판매량이 많은 상황이며, 만약 향후 현물가격의 본격 하락을 예상하고 모듈업체들이 경쟁적으로 DRAM 판매에 나서게 될 경우 현물가격의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최근 현물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놀랐고, 시장조사기관 및 외국계 증권사 발표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내년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컨센서스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주가는 연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이번에 충격이 크게 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이다."

**(초점)-9월 외평채 발행 앞두고 기대 커지는 크로스..베이스스 축소 켈리 올해도?**

서울, 8월 12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통화스왑(CRS) 시장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9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가 발행된 후광효과와 함께 스왑베이스스가 급하게 축소됐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정부, 9월 초 외평채 발행 준비..크로스 시장, 지난해 학습효과 떠올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초 최대 15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 대부분의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로드쇼를 예정대로 진행할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왑 딜러들은 지난해 외평채 발행 이후 나타났던 스왑베이스스 축소 켈리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0일 정부는 총 14억 5천만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사상 최저금리로 발행했다. 유로화로 발행된 7억유로 규모의 5년물 외평채 금리는 -0.059%를 기록했는데, 비유럽 국가 중 유로화 표시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달러화로 발행된 10년물 외평채 역시 미국 국채금리 대비 가산금리가 50bp에 그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은 CRS 시장에도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한국물(Korea Paper) 가산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가 발행시장에서 엄청난 흥행을 한 후 다른 국내 기관들이 연달아 외화채 발행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연쇄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외평채 발행 당시 -83bp대였던 5년 스왑베이스스는 22일 -73bp로 10bp 축소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딜러들은 외평채 발행이 이번에도 CRS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작년에 외평채가 기록적인 수준에서 발행된 후 베이스스가 급격히 타이튼됐다"며 "작년에는 외평채 발행이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비드 우위로 바꾸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외평채 발행이 작년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평채 시장 영향 제한적일 것' 전망도

하지만 코로나 19로 대내외 금융시장이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던 작년과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미 완전히 회복한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미 지난 6월에 10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0.075%라는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한 상황에서 외평채가 줄일 수 있는 가산금리 폭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작년 외평채 발행의 시장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평채 발행 이전부터 수급상 비드가 우위에 있었고 외평채의 성공적인 발행은 전반적인 스왑베이스스 개선 흐름 상에서 추가된 재료라는 분석이다.

B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작년엔 8월 말부터 역외 포워드 바이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규모로 5년, 7년 테너에서 나왔고 7년 테너에 장기 재정거래가 있었다"며 "당시 역외기관이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외평채 발행이 스왑베이스스 축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던 만큼 올해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결국 그때그때 어떤 플로우가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는 시장 여건의 차이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이라 외평채 발행과 관련해 희망은 있지만 전망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외평채 발행 이후 스왑베이스스가 축소된 것에는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펀더멘털 여건의 변화도 작용했던 것으로 본다"며 "외평채의 만기와 물량 규모를 가능한 한 투자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구성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진단)-'셀 반도체'에 다음주 삼전 배당까지..외환 수급 긴장감↑**

서울, 8월 13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부상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반도체 주식을 연일 팔아치우자 원화 절하 압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13일 오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주간 기준으로 각각 약 8%, 15% 폭락해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규모는 5조원을 훌쩍 넘었다.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약 30원 급등해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역송금 수요로 연결되며 달러/원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그간 역대 외환시장 수급, 즉 네고에 따른 달러 공급과 해외투자 관련 달러 수요는 대체로 균형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외국인 주식 매도와 이에 따른 역송금 수요 때문에 수급 무게 중심이 수요 쪽으로 한껏 기울어졌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셀 코리아"까지는 아니지만 외인 주식 역송금 수급이 말라야 환율 상승도 진정될 수 있다"면서 "1160원대 후반이 뚫린다면 환율 전망을 바꿔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는 삼성전자 분기 배당금 지급이 예정돼 있어 수급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배당 지급일은 오는 18일로 외국인 몫은 약 1.4조원으로 추산된다. 배당 관련 달러 수요는 그간 분산 송금되거나 재투자 가능성 등으로 외환 시장 영향력이 다소 축소됐지만, 최근 외국인 주식 구매 양상 속에서 수급 변수로 부상할 위험이 적지 않다.

다른 은행 외환 딜러는 "한국 주식의 다른 쪽으로 외인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면서 "외국인 주식 매매 현황과 환율 상승에 따른 역외의 추가 반응이 관건인데, 수급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환율이 쉽게 빠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솔루션이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개발업체를 약 1 조원에 인수하기로 한 데 따른 수급 변수도 있다. 인수 규모는 7억 2700만유로로 오는 10월까지 인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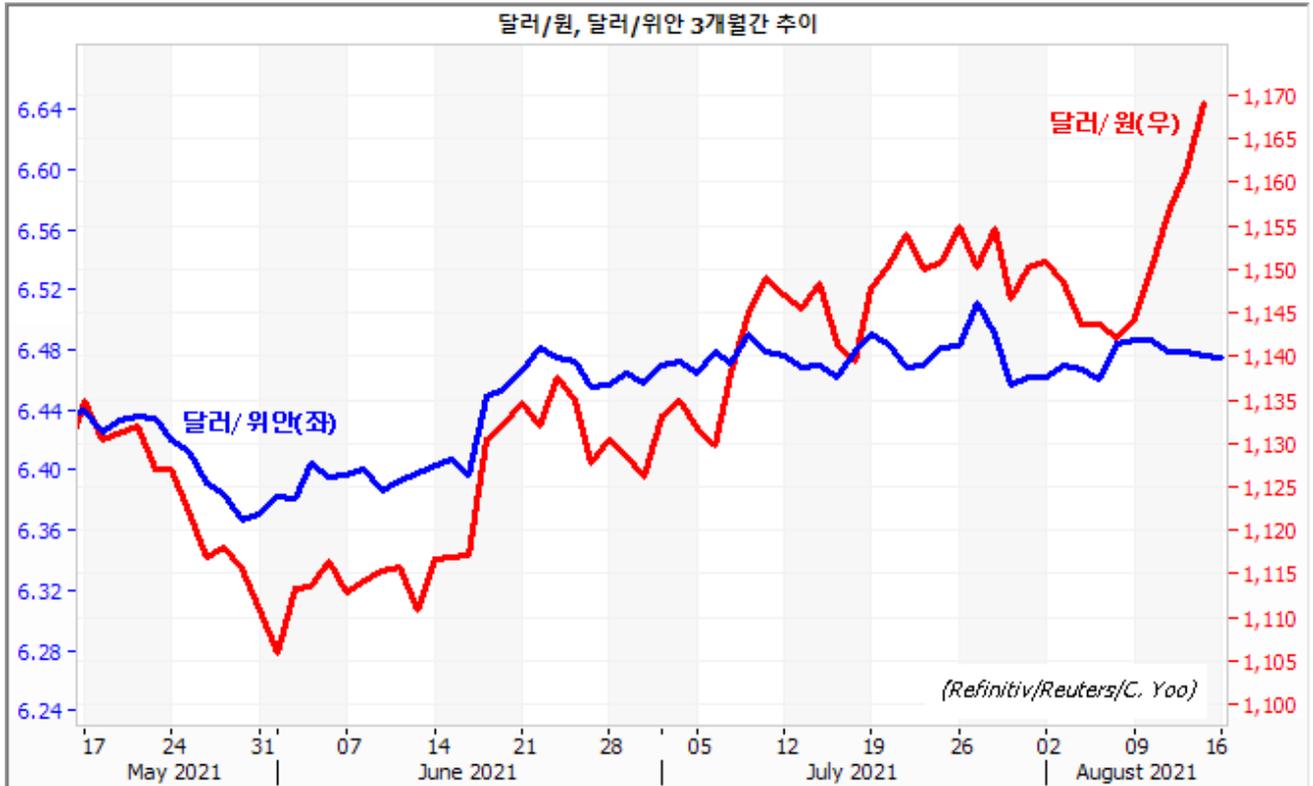
한화솔루션은 이를 위해 올 초 유상증자와 그린펀드 파이낸싱으로 원화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관계자는 "환전 방법과 시기, 규모는 환율 추이를 지켜보고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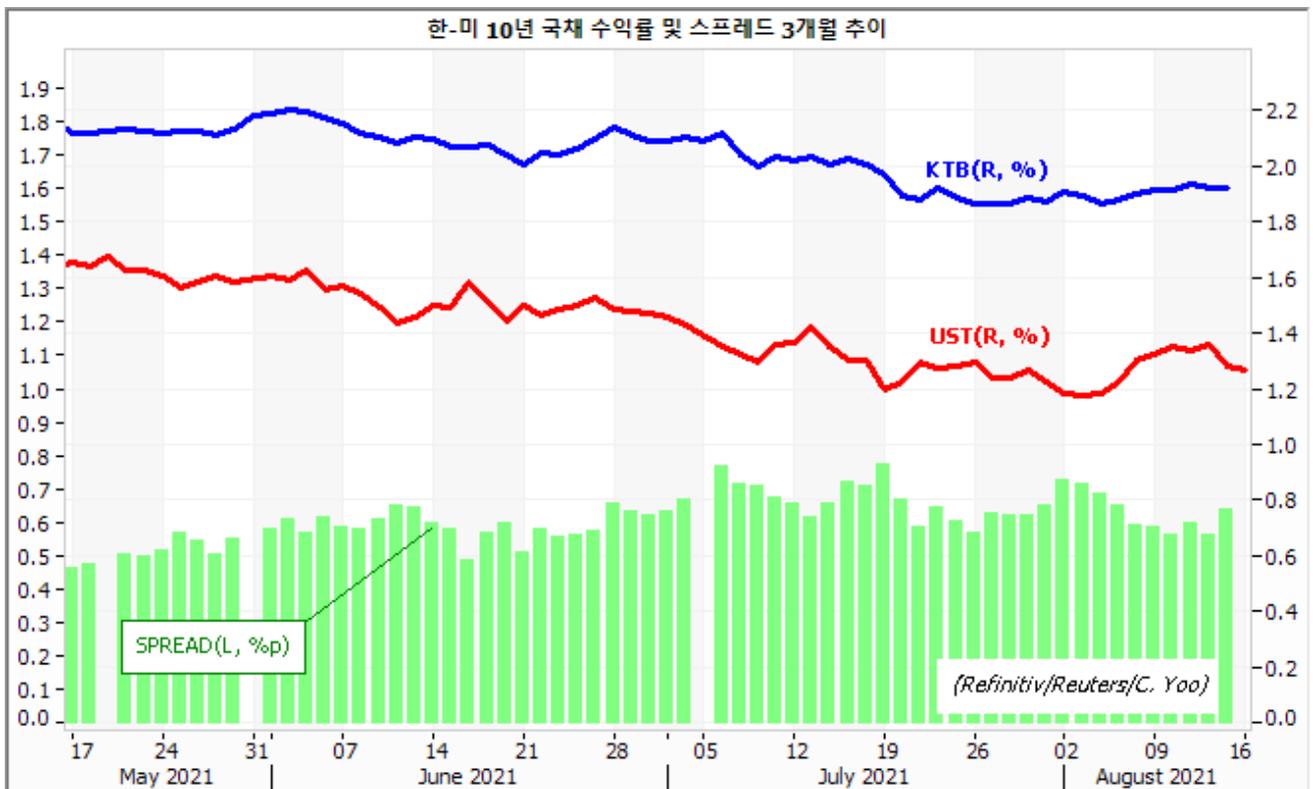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